

## 어머니의 양육 행동특성과 초등학생의 식습관에 관한 연구

남 상 명

전북과학대학 호텔조리영양과

(2003년 8월 29일 접수)

###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ating Habit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Parenting Behavior Characteristics

Sang-Myoung Nam

Dept. of hotel culinary art and nutrition, Jeonbuk Science College

(Received August 29, 2003)

#### Abstract

The object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ating habits of high(4th, 5th, 6th)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parental behavior characteristics(affection, rational guidance, overprotect and neglect). The parenting behavior scale and demographic variables, eating habits and food frequency were administered to the subjects. In this investigation, the subjects were 396 boys and 337 girls in Chunju city in Korea, 50.1% of the mothers was in the age from 35 to 39 years and 57.8% of the mother had an occupation. Data were analyzed by using a SPSS PS package. Significant differences and correlation among variables were determined by the frequency,  $\chi^2$ -test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Eating habits was significantly influenced by mother's employment status, but was not affected by the levels of mother's education and income. Parental behavior characteristics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children's snacks habits( $p < 0.05$ ,  $p < 0.01$ ), but have no connection with dietary habits and the eating out. The survey revealed higher percentage of the children who had taken affectionate, reasonable and positively reinforced child care, answered they enjoy meals and the other groups answered they did not. Also frequency of having soup, green vegetables, fruits, dairy products had positive relationship with affective, reasonable rearing attitude, but negative relationship with neglective rearing attitude. And the survey showed children who were reared in overprotect had chocolate, candy and the like in large quantities.

**Key Words** : parental behavior characteristics, eating habits, rearing attitude, food frequency, snacks

#### I. 서론

인간이 식사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식생활은 개인의 생활 양식의 일부분으로, 이는 식

행동과 깊게 연관되어 있다<sup>1,2)</sup>. 식행동은 한사람의 생활 형태에 의해 결정이 되며, 개인의 행동양식과도 상관이 있으며, 모든 인간의 행동 즉 일, 사회적 활동, 휴식, 오락 등과 연관되어 변화되어 왔다<sup>3)</sup>. 식

행동은 외적, 내적 환경 요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 각 개인의 행동 양식 중 식생활과 관련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Murcott<sup>4)</sup>에 의하면 식품선택과 행동이 우연한 것이 아니며, 어떤 패턴이나 규칙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시인하는 것이며, 한편, 식에 관한 습관을 단순한 심리적 욕구충족의 수단이나 개개인의 기호 문제라기 보다 문화적인 행동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했다. 올바른 식행동 및 식습관은 어린 시절부터 형성되며, 어린이가 접해 있는 여러 환경들로부터 영향을 받아 형성되어 진다. Yperman 등<sup>5)</sup>은 어린이의 식습관은 학교, 가정, 사회환경 등의 요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가정은 최초의 환경으로 가족은 동일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공동체를 형성하므로 가족만의 독특한 생활양식과 행동태도를 가지게 된다. 특히 가장 많은 시간을 아이들과 함께 하는 어머니의 경우 어머니의 양육 행동에 따라 자녀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된다<sup>6-8)</sup>.

또한 어머니는 한 가정의 주부로서 가족 구성원 모두의 식생활을 계획하고 준비하기 때문에 주부의 식생활에 대한 이해와 태도는 가족 전체의 식품 섭취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며, 자녀의 성장과 발육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sup>9-10)</sup>. 실제로 부모 중 어머니 쪽이 자녀의 식습관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며, 어머니에 의한 자녀의 식습관 변화율은 70% 이상이라고 한다<sup>11-12)</sup>. 어머니의 직업유무, 어머니의 영양지식 등이 아동의 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식행동은 아동의 건강, 성격, 인지능력, 과잉행동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된 바 있다<sup>13-20)</sup>.

가정 내에서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아이들의 기초적인 성격과 성장의 틀이 결정되며 부모-자녀 간의 애착형성과 부모의 자녀양육태도 등은 아이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은 물론 신체적, 사회적 발달 등 모든 측면에 걸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한다<sup>21)</sup>.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식습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아 초등학교 아동의 식습관 실태를 조사하고 아동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관련 변인으로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조사하여 식습관과의 상호관계를 조사하여 아이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바람직한 부모교육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 II. 연구내용 및 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전주시에 위치한 H 초등학교 4, 5, 6학년 아동 총 800명이며, 이중 불성실한 응답자를 제외한 총 713부가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되었다.

### 2. 연구 방법

#### 1) 환경적 요인

설문지를 이용하여 어린이의 일반적인 사항인 성별, 연령, 형제수 등을 조사하고 어머니와 관련된 변인으로는 어머니의 연령과 교육, 직업유무, 경제적인 정도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였다.

#### 2) 아동의 식습관 요인

아동의 식습관 조사에 사용된 설문지는 선행연구 김교련<sup>22)</sup>, 임지나<sup>23)</sup>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 적합하도록 어머니 양육태도 요인과 관련이 있는 문항들로 재구성하였다. 식습관 실태에 대한 질문은 6문항으로 아침식사실태, 아침식사 준비자, 저녁식사시 함께 하지 못하는 사람, 아이들만이 저녁식사를 하는 횟수, 주어진 음식을 남기는가, 식사중의 표정 등을 조사하였으며 간식 식습관에 대한 질문은 10문항으로 간식 준비자, 간식의 종류와 섭취 빈도를 조사하였다. 외식 식습관에 대한 질문은 2문항으로 외식횟수, 음식의 종류를 조사하였다.

#### 3) 어머니의 양육행동특성 측정도구

어머니의 양육행동특성 4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sup>24)</sup>.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을 평가하기 위해 김성옥<sup>25)</sup>의 질문지와 박행진<sup>26)</sup>의 방임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합리적인 지도', '애정적 양육', '과보호 양육', '방임'의 4개의 영역으로 총 5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5점, '그런 편이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부과하였다.

각 양육행동점수를 통해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세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상집단(각각의 양육행동 평균 + 1/2표준편차초과 집단), 중집단(각각의 양육행동

평균 - 1/2표준편차이상 각각의 양육행동 평균 + 1/2표준편차이하 집단), 하집단(각각의 양육행동평균 - 1/2표준편차미만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합리적 지도 양육 : 아동을 도와주거나 아동의 행동을 지도하는데 있어 분명한 이유를 갖고 있어서, 왜 안되고, 왜 용납되는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는 태도이다.

② 애정적 양육 : 아동에게 언어적·비언어적으로 친밀감으로 나타내며 아동 중심적이면서 아동을 존중·수용해주고 아동의 요구에 민감한 태도로 정의된다.

③ 과보호 양육 : 아동의 독립적인 행동을 되도록 막고 의존성을 보상해주는 행동으로서 아동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나 뒷바라지를 하는 태도로 정의된다.

④ 방임적 양육 : 양육자가 아동을 보호하고 의식, 주의 기본적인 지원을 소홀히 하는 행동 뿐 아니라 아동으로 하여금 영양부족과 교육적 무관심과 불결한 위생환경, 생존에 필요한 의료적 지지를 하지 않는 경우를 방임이라 한다.

### 3. 통계처리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WIN을 이용하여 식습관 실태조사는 빈도,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인구학적 특성과 식습관과의 관계분석은 Chi-square test를 실시하였으며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간식빈도의 관계는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 III. 결과 및 고찰

### 1. 일반적 특성

본 조사의 대상자는 4학년에서 6학년의 초등학생 총 713명으로 남학생은 376명이고 여학생은 337명이며 형제 순위는 주로 첫째(42.8%), 둘째(44.4%)가 가장 많았다. 조사 대상자의 어머니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가 42.2%,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57.8%로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연령층은 35~39세가 50.1%로 가장 많았다. 어머니의 학력은 대학졸>고졸>대학원졸>전문대졸>중졸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어머니의 양육행동특성은 질문지를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Frequency(%)	
Children's related variables	Sex	Boys(n=396)	376(52.7)
		Girls(n=337)	337(47.3)
	Grade	Fouth grade	248(34.8)
		Fifth grade	251(35.2)
		Sixth grade	214(30.0)
	Birth order	the only son	31( 4.4)
		first	304(42.8)
second		315(44.4)	
	more than third	60( 8.5)	
Mother's related variables	Occupation	having	396(57.8)
		not having	289(42.2)
	Ages	29 ~ 34	32( 4.7)
		35 ~ 39	338(50.1)
		40 ~ 44	263(39.0)
		45 ~	41( 6.1)
	Educational level	High school	212(34.0)
Graduated university		296(44.6)	
Post graduated university		121(19.4)	
Income	High	229(32.8)	
	Middle	429(61.4)	
	low	41( 5.9)	

<Table 2> Parenting behavior scale

Parenting behavior characteristics		number	Mean ± SE
Rational guidance	high	200	3.52±0.36
	middle	238	4.24±0.16
	low	268	4.78±0.16
Affection	high	203	2.99±0.50
	middle	232	3.98±0.21
	low	274	4.70±0.21
Overprotection	high	231	1.90±0.29
	middle	297	2.74±0.25
	low	180	3.77±0.58
Neglect	high	208	1.10±9.28
	middle	347	1.56±0.21
	low	147	2.75±0.72

통해 4가지 특성을 조사하였으며 그 특성의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한 특성을 다시 상, 중, 하 세 집단으로 나누었다<Table 2>. 본 연구집단은 어머니의 합리적 지도 양육특성의 평균이 4.24±0.56, 애정적 양육특성의 평균이 3.97±0.77, 과보호 양육특성의 평균은 2.73±0.80, 방임양육특성의 평균이 1.67±0.69로 나타나 본 연구집단은 전반적으로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합리적 지도 양육특성, 애정적 지도 양육특성이 높은 집단으로 보인다.

2. 식습관

초등학생 아동의 식습관 실태는 <Table 3>과 같다. 아침 식사의 규칙성에 대한 질문에 '주식과 부식을 매일 먹는다'가 43.1%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으며 '항상 먹지 않는다'는 2.3%의 응답을 보였다. 이는 김<sup>15)</sup>의 결과에서도 밥과 국외에 다른 반찬을 곁들인 식사를 가장 많이 한다고 한 결과와 일치하며 구<sup>27)</sup>, 주<sup>28)</sup> 등의 결과에서도 50% 이상이 매일 아침식사를 한다고 보고하였다. 남·여학생에 있어서 차이를 보였는데 여학생의 경우는 남학생에 비해 '간단하게 아침을 먹는다'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결식율도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고<sup>29)</sup>, 이<sup>30)</sup> 등의 연구에서도 남학생의 아침 식사율이 여학생에 비해 더 높게 조사된 결과와 일치한다. 아침식사를 준비하는 사람으로는 어머니가 94.3%로 가장 높게 나타나 가정에서 아이들의 식습관에 어머니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한<sup>31)</sup>의 결과에

서도 90% 이상이 '어머니'라고 응답하였다. 이<sup>32)</sup>는 어머니가 식생활 관리자일 때 영양지식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으며 또한 식생활관리자가 직접 식사 준비를 하면서 식사시 식품의 종류와 명칭 그리고 음식과 우리 몸의 관계 등을 지도하면서 식사시간을 갖는다면 아동의 식생활이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sup>33)</sup>. 남·여학생 모두 한 주에 1~2회 정도 아이들만이 저녁식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주 4~5회 정도로 나타났다. 매일 가족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는 경우는 6.9%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장<sup>34)</sup>의 결과에서는 초, 중, 고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저녁식사를 가족이 함께 하는 경우가 42%로 본 연구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학년이 높아질수록 횟수가 적어진다고 하였다. 저녁식사를 함께 못하는 사람은 아빠가 58.0%로 가장 많았으며 두분 다 인 경우도 10.5%로 남·여학생 모두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이는 맞벌이 부부와 여자들의 사회생활진출이 증가된 결과로 생각된다<sup>35-36)</sup>. 외식의 횟수는 68.7%가 주 1~2회 정도 외식한다고 하였다. 외식 종류는 남·여학생 모두 주로 '양식을 먹는다'고 하였으며 그 다음은 한식, 중식, 패스트푸드, 일식 순이었다. 간식 식습관에 대한 결과를 보면 방과 후 간식을 챙겨주는 사람은 '엄마'가 53.1%로 가장 많았으며 '혼자서 챙겨 먹는다'가 38.9%로 그 다음이었다. 간식의 종류는 남학생은 과자와 과일을 유사하게 선호하였으며 여학생은 과일을 더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식은 주로 만들어서 먹는다'의 질문에 남학생은 '그렇지 않다(41.8%)'가 가장 많았으며 여학생은 '때때로(46.7%)'가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다. 간식 규칙성은 남학생은 '정해진 분량과 시간을 지켜서 먹는다(47.7%)'고 하였으며 여학생은 '가끔 그렇다(36.7%)'고 하였다. <Table 4>는 식품섭취의 빈도를 조사한 것이다. 국 먹는 횟수는 '매일 먹는다'가 가장 많았고 녹황색 채소의 섭취는 남·여학생 모두 주 1~2회 섭취한다가 가장 많이 응답하여 기호도가 낮은 것으로 보이며 여학생이 더 낮은 선호도를 보였다. 한<sup>31)</sup>, 김<sup>37)</sup>의 결과에서도 초등학교 급식의 급식실태조사에서 잔식량이 가장 많은 것은 채소류로 나타나 초등학생들이 채소기피현상을 보였다. 과일은 '매일 먹는다'가 가장 높게 나타나 과일 선호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라면은 주 1~2회가

<Table 3> Eating habits to meal

(N : %)

		Classification	Boys	Girls	Total
Breakfast	Regularity of breakfast	I have meals and side dishes everyday	162(48.2)	121(37.8)	283(43.1)
		I have light breakfast everyday	124(36.9)	136(42.5)	260(39.6)
		I have light breakfast sometimes	44(13.1)	54(16.9)	98(14.9)
		I never have breakfast	6(1.8)	9(2.8)	15(2.3)
	Meal preparation	mother	337(95.5)	312(93.1)	649(94.3)
		employee	1(0.3)	3(0.9)	4(0.6)
		grandmother	7(2.0)	7(2.1)	14(2.0)
		father	8(2.3)	13(3.9)	21(3.1)
Dinner	Number of times that children eat dinner by themselves	1 ~ 2 times/week	211(59.9)	231(69.4)	442(64.5)
		2 ~ 3 times/week	44(12.5)	28(8.4)	72(10.5)
		3 ~ 4 times/week	25(7.1)	14(4.2)	39(5.7)
		4 ~ 5 times/week	46(13.1)	39(11.7)	85(12.4)
		none	26(7.4)	21(6.3)	47(6.9)
	Whom you eat dinner with less	mother	81(23.0)	72(21.6)	153(22.3)
		father	200(56.8)	198(59.3)	398(58.0)
		both	33(9.4)	39(11.7)	72(10.5)
		none	38(10.8)	25(7.5)	63(9.2)
Eat out	Number of times	1 ~ 2 times/week	247(71.0)	221(66.4)	468(68.7)
		2 ~ 3 times/week	59(17.0)	64(19.2)	123(18.1)
		3 ~ 4 times/week	24(6.9)	27(8.1)	51(7.5)
		4 ~ 5 times/week	13(3.7)	17(5.1)	30(4.4)
		none	5(1.4)	4(1.2)	9(1.3)
	Type of food	Korean	90(25.8)	105(31.4)	195(28.6)
		American food	139(39.8)	134(40.1)	273(40.0)
		Japanese	28(8.0)	24(7.2)	52(7.6)
		Chinese	53(15.2)	39(11.7)	92(13.5)
		Fast food	32(9.2)	26(7.8)	58(8.5)
		Any kind	7(2.0)	6(1.8)	13(1.9)
	Snacks preparation	mother	204(58.5)	158(47.4)	362(53.1)
		father	7(2.0)	5(1.5)	12(1.8)
		grandmother	15(4.3)	10(3.0)	25(3.5)
		employee	8(2.3)	10(3.0)	18(2.6)
		self prepared(including bought)	115(33.0)	150(45.0)	265(38.9)
Snacks	Type of snacks	crackers	127(36.3)	114(34.4)	241(35.4)
		bread	87(24.9)	80(24.2)	167(24.5)
		fruits	126(36.9)	132(39.9)	258(37.9)
		fast food	10(2.9)	5(1.5)	15(2.2)
Frequency of making one's own snacks	yes	63(18.1)	62(18.7)	125(18.4)	
	sometimes	140(40.1)	155(46.7)	295(43.3)	
	no	146(41.8)	115(34.6)	261(38.3)	
Regularity of snacks	yes	164(47.7)	116(35.2)	280(41.5)	
	sometimes	116(33.7)	121(36.7)	237(35.2)	
	no	64(18.6)	93(28.2)	157(23.3)	

57.9%로 가장 높았으며 우유나 유제품은 매일 먹는다(48.8%)가 가장 높아 남·여학생 모두 선호도가 매우 높았다. 청량음료는 38.4%가 주 1~2회 마신다

고 하였으며 10.4%만이 매일 먹는다고 하였다. 초코렛, 캔디, 엿 등 단 과자 등은 주 1~2회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Table 4> Food frequency (N: %)

Classification	Boys	Girls	Total	
Soup	none	5(1.5)	7(2.1)	12(1.8)
	1~2 times/week	67(19.5)	54(16.3)	121(17.9)
	2~3 times/week	59(17.2)	38(11.4)	97(14.3)
	3~4 times/week	41(11.9)	56(16.9)	97(14.3)
	4~5 times/week	45(13.1)	53(16.0)	98(14.5)
	everyday	127(36.9)	124(37.3)	251(37.1)
Green vegetables	none	49(14.2)	53(16.0)	102(15.1)
	1~2 times/week	106(30.7)	101(30.4)	207(30.6)
	2~3 times/week	47(13.6)	52(15.7)	99(14.6)
	3~4 times/week	31(9.0)	41(12.3)	72(10.6)
	4~5 times/week	41(11.9)	31(9.3)	72(10.6)
	everyday	71(20.6)	54(16.3)	125(18.5)
Fruits	none	7(2.0)	0(0.0)	7(1.0)
	1~2 times/week	66(19.1)	53(16.0)	119(17.6)
	2~3 times/week	62(17.9)	55(16.6)	117(17.3)
	3~4 times/week	35(10.1)	49(14.8)	84(12.4)
	4~5 times/week	56(16.2)	65(19.6)	121(17.8)
	everyday	120(34.7)	110(33.1)	230(33.9)
Instant noodles	none	31(9.0)	21(6.3)	52(7.7)
	1~2 times/week	195(56.5)	197(59.3)	392(57.9)
	2~3 times/week	66(19.1)	66(19.9)	132(19.5)
	3~4 times/week	19(5.5)	26(7.8)	45(6.6)
	4~5 times/week	23(6.7)	18(5.4)	41(6.1)
	everyday	11(3.2)	4(1.2)	15(2.2)
Dairy products	none	17(4.9)	13(3.9)	30(4.4)
	1~2 times/week	49(14.2)	40(12.1)	89(13.2)
	2~3 times/week	41(11.9)	24(7.3)	65(9.6)
	3~4 times/week	30(8.7)	45(13.6)	75(11.1)
	4~5 times/week	42(12.2)	48(14.5)	90(13.3)
	everyday	165(48.0)	161(48.6)	326(48.3)
Carbonated beverages	none	35(10.2)	29(8.8)	64(9.5)
	1~2 times/week	143(41.7)	116(35.0)	259(38.4)
	2~3 times/week	63(18.4)	78(23.6)	141(20.9)
	3~4 times/week	39(11.4)	50(15.1)	89(13.2)
	4~5 times/week	22(6.4)	29(8.8)	51(7.6)
	everyday	41(12.0)	29(8.8)	70(10.4)
Chocolates, Candies or Caramels	none	43(12.5)	17(5.2)	60(8.9)
	1~2 times/week	140(40.8)	138(41.8)	278(41.3)
	2~3 times/week	60(17.5)	63(19.1)	123(18.3)
	3~4 times/week	46(13.4)	51(15.5)	97(14.4)
	4~5 times/week	22(6.4)	39(11.8)	61(9.1)
	everyday	32(9.3)	22(6.7)	54(8.0)

3. 어머니의 직업유무, 교육, 경제수준과 아동의 식습관

학령기 아동의 영양섭취와 식습관 형성은 가족 구성원과의 가정생활, 학교생활, 대중매체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그 중 특히 어머니의 영양에 대한 관심도, 식습관, 식태도, 영양지식 등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sup>38)</sup>. 초등학생의 비만에 대한 연구 결과 어머니의 직업유무와 교육정도 등이 자녀의 영양소 섭취, 건강 상태 및 비만 유발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따라서 아동들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생활을 하며 올바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영양교육은 아동 뿐 아니라 부모에게도 필요하다고 하여 아동의 식습관 및 비만과 관련하여 부모의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sup>39-40)</sup>. 특히 아동의 발달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인 사회경제적 배경, 모의 연령, 교육수준에 관한 연구들은 공통적인 변인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위치, 어머니의 연령, 교육수준, 취업여부 등은 매개 변수인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 의사소통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어머니의 취업을 둘러싼 배경변인, 즉 모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 선호도, 취업동기 및 부의 지지정도에 따른 모의 심리상태가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어 이 양육행동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발달에 영향을 주는 인과 모델을 확인되고 있다<sup>21)</sup>. 또한 공<sup>41)</sup>은 부모의 학력이 양육태도에 영향을 주어 학력이 높을수록 양육태도가 수용적, 긍정적이며 통제가 적고 이성적, 합리적으로 순종하도록 이끌어서 아동의 긍정적이며 통제가 적고 이성적, 합리적으로 순종하도록 이끌어서 아동의 긍정적 자아개념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모의 양육행동은 교육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일관성 있는 규제' '친밀감' 있는 양육행동 등의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나타내며 이는 아동의 우수한 지적발달에 영향을 준다<sup>6)</sup>.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사회적변인인 직업유무, 교육, 경제수준과 초등학생 아동의 식습관과의 관계를 조사하였다(Table 5). 아침 식사 규칙성은 어머니의 환경요인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sup>13)</sup>의 결과에서도 어린이가 아침식사를 하는 것은 모의 취업환경과 상관없이 비슷하였고 아침결식정도는 식욕과 상당히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어머니가 직업이 있는 경우 아침식사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아빠'의 비율(5%)이 어머니가 직업이 없는 경우(0.4%)보다 높게 나타났다. 아이들만이 저

녁을 먹는 횟수도 어머니가 직업이 있는 경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가 함께 저녁을 먹지 못하는 경우 또한 어머니가 직업을 갖는 경우(26.4%)가 그렇지 않은 경우(17.3%)보다 높게 나타났다. 방과후 간식을 준비해주는 사람으로는 어머니가 직업이 있는 경우에는 '혼자서 챙겨 먹는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간식을 만들어서 먹는가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가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다. 간식을 먹는 규칙성은 어머니의 취업유무와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교육수준이나 경제수준이 높을수

록 영양지식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어 아동의 식습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했으나 관련이 없었다. 김<sup>17)</sup>의 결과에서는 교육수준별에 따른 결과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식행동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김<sup>33)</sup>, 한<sup>31)</sup> 등을 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영양지식이 높고 영양지식이 높을 수록 영양태도가 높은 것으로 서로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영양태도가 높게 나왔다고 식생활 점수가 높은 것은 아니라 단지 지식으로 그쳤을 뿐 실천을 위한 행동으로의 변화 의지까지 발전하지

<Table 5> Eating habits by mother's occupation, education level, income

Classification	Occupation		Education level			Income			
	Not having	Having	High	Middle	Low	High	Middle	Low	
Regularity of breakfast	I have meals and side dishes everyday	122(44.2)	157(43.5)	159(47.2)	17(40.5)	80(40.2)	97(46)	73(37.6)	110(44.5)
	I have light breakfast everyday	112(40.6)	142(39.3)	124(36.8)	21(50.0)	87(43.7)	79(37.4)	88(45.4)	92(37.2)
	I have light breakfast sometimes	37(13.4)	54(15.0)	47(13.9)	3(7.1)	27(13.6)	28(13.3)	30(15.5)	40(16.2)
	I never have breakfast	5(1.8)	8(2.2)	7(2.1)	1(2.4)	5(2.5)	7(3.3)	3(1.5)	5(2.1)
Total		276(100)	361(100)	337(100)	42(100)	199(100)	211(100)	194(100)	247(100)
		$\chi^2 = .468, df = 3$ p=.926		$\chi^2 = 5.537, df = 6$ p=.477			$\chi^2 = 11.864, df = 10$ p=.294		
Meal preparation P = .00	mother	283(99.3)	346(90.6)	330(93.0)	41(95.3)	200(95.7)	213(95.5)	189(93.5)	242(93.8)
	employee	1(0.4)	3(0.8)	3(0.8)	0(0.0)	1(0.5)	1(0.4)	2(1.0)	1(0.4)
	grandmother	0(0.0)	14(3.7)	7(2.0)	2(4.7)	2(1.0)	2(1.0)	7(3.5)	5(1.9)
	father	1(0.4)	19(5.0)	15(4.2)	0(0.0)	6(2.9)	7(3.1)	4(2)	10(3.9)
	Total	285(100)	382(100)	355(100)	43(100)	209(100)	223(100)	202(100)	258(100)
		$\chi^2 = 23.909^{**}, df = 3$ p=.00		$\chi^2 = 5.791, df = 6$ p=.447			$\chi^2 = 6.274, df = 6$ p=.393		
Frequency of children's eating dinner by themselves	1~2 times/week	191(67.7)	241(63.1)	232(65.7)	30(69.8)	133(63.6)	147(65.6)	132(66.0)	160(62.5)
	2~3 times/week	31(11.0)	35(9.2)	32(9.1)	3(7.0)	27(12.9)	25(11.2)	17(8.5)	30(11.7)
	3~4 times/week	10(3.5)	29(7.6)	24(6.8)	2(4.7)	7(3.3)	8(3.6)	9(4.5)	21(8.2)
	4~5 times/week	25(8.9)	59(15.4)	42(11.9)	5(11.6)	30(14.4)	28(12.5)	23(11.5)	33(12.9)
	none	25(8.9)	18(4.7)	23(6.5)	3(7.0)	12(5.7)	16(7.1)	19(9.5)	12(4.7)
Total		282(100)	382(100)	353(100)	43(100)	209(100)	224(100)	200(100)	256(100)
		$\chi^2 = 15.478^{**}, df = 4$ p=.004		$\chi^2 = 6.361, df = 8$ p=.607			$\chi^2 = 5.627, df = 6$ p=.466		
Whom you eat dinner with less	mother	49(17.3)	101(26.4)	81(22.9)	16(37.2)	43(20.7)	55(24.7)	41(20.3)	56(21.8)
	father	184(65.0)	203(53.1)	212(59.9)	20(46.5)	122(58.7)	133(59.6)	112(55.7)	150(58.4)
	both	20(7.1)	51(13.4)	37(10.5)	3(7.0)	24(11.5)	14(6.3)	25(12.5)	32(12.5)
	none	30(10.6)	27(7.1)	24(6.8)	4(9.3)	19(9.1)	21(9.4)	23(11.5)	19(7.4)
	Total	283(100)	382(100)	354(100)	43(100)	208(100)	223(100)	201(100)	257(100)
		$\chi^2 = 18.320^{**}, df = 3$ p=.000		$\chi^2 = 7.198, df = 6$ p=.303			$\chi^2 = 10.630, df = 8$ p=.224		

\* p<0.05

\*\* p<0.01

<Table 5> Continue

		Occupation		Education level			Income		
		Not having	Having	High	Middle	Low	High	Middle	Low
Snacks preparation	mother	195(69.6)	151(39.7)	186(53.1)	23(53.5)	107(51.2)	142(64.0)	96(48.0)	122(47.8)
	father	1(0.4)	11(2.9)	8(2.3)	0(0.0)	3(1.4)	1(0.5)	5(2.5)	5(2.0)
	grandmother	3(1.1)	22(5.8)	16(4.6)	1(2.3)	5(2.4)	4(1.8)	13(6.5)	8(3.1)
	employee	7(2.5)	11(2.9)	10(2.9)	2(4.7)	4(1.9)	9(4.1)	3(1.5)	5(2.0)
	self prepared(including bought)	74(26.4)	185(48.7)	130(37.1)	17(39.5)	90(43.1)	66(29.6)	83(41.5)	115(45.1)
Total		280(100)	380(100)	350(100)	43(100)	209(100)	222(100)	200(100)	255(100)
		$\chi^2 = 63.127^{**}$ , df= 4 p=.000		$\chi^2 = 5.687$ , df= 8 p=.682			$\chi^2 = 15.565^{**}$ , df= 4 p=.004		
Frequency of making one's own snacks	yes	53(18.9)	71(18.8)	77(22.1)	5(11.6)	29(13.9)	43(19.4)	35(17.5)	45(17.7)
	sometimes	136(48.4)	144(38.1)	145(41.5)	18(41.9)	96(45.9)	100(45.0)	80(40.0)	144(44.9)
	no	92(32.7)	161(43.1)	127(36.4)	20(46.5)	84(40.2)	79(35.6)	85(42.5)	95(37.4)
	Total	281(100)	378(100)	349(100)	43(100)	209(100)	222(100)	200(100)	254(100)
		$\chi^2 = 8.517^{*}$ , df= 2 p=.014		$\chi^2 = 7.795$ , df= 4 p=.099			$\chi^2 = 10.813$ , df= 8 p=.213		
Regularity of snacks	yes	126(45.8)	148(39.3)	153(44.1)	17(41.5)	81(39.1)	98(45.4)	84(42.2)	95(37.4)
	sometimes	92(33.5)	132(35.0)	118(34.0)	18(43.9)	74(35.7)	76(35.2)	67(33.7)	94(37.0)
	no	57(20.7)	97(25.7)	76(21.9)	6(14.6)	52(25.1)	42(19.4)	48(24.1)	65(25.6)
	Total	275(100)	377(100)	347(100)	41(100)	207(100)	216(100)	199(100)	254(100)
		$\chi^2 = 3.426$ , df= 2 p=.180		$\chi^2 = 3.611$ , df=4 p=.461			$\chi^2 = 2.451$ , df=4 p=.653		

\* p<0.05

\*\* p<0.01

못하였으며 교육수준이 높더라도 식습관과는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교육수준, 경제적인 정도가 아동의 식습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4.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간식 식습관과의 상관관계

간식은 식사만으로 부족한 영양을 보충해줄 수 있는 것으로 중요성을 갖는다. 따라서 기호식보다는 아이의 영양 균형을 고려하여 규칙적으로 섭취할 수 있도록 애정을 가지고 만들어 주거나 사줄 수 있는 형태이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침, 저녁 식습관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간식 식습관에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 그 상관관계를 <Table 6>에 나타내었다. 인간은 발달과정에서 무엇보다 가정환경의 영향을 받게 되며, 특히 일상적인 접촉에서 발생하는 부모와 자녀관계가 아동의 제반 발달 특성에 결정적인 변인이 된다는 것은 많은 연구들에 의해 입증되었다. 성

장하면서 많은 환경적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이러한 요인중의 하나가 부모의 양육태도라고 할 수 있다. 양육행동과 아동의 발달특성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은 대체적으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발달특성 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sup>21)</sup>. 어머니의 합리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의 사회성 발달과 애착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즉 자녀의 수용될 수 있는 애착행동에 행동을 돕기 위해서 수용될 수 있는 행동과 수용될 수 없는 행동의 이유를 밝혀 주는 것 뿐 아니라 그 이유를 함께 생각해 보는 합리적 양육 행동은 아동의 안정애착과 높은 사회성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합리적 지도, 애정적 태도, 일관성 있는 규제 행동을 많이 보일수록 아동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낮게 나타났으며 모가 권위주의적 통제, 과보호 행동을 많이 할수록 아동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높게 나타났<sup>42)</sup>. 부모의 민주적인 양육태도는 아동의 사회성과 관계가 있고, 부모의



<Table 6> Correlation between parenting behavior characteristics and snacks habits

	Rational guidance	Affection	Over protection	Neglect	
Snacks	Frequency of making one's own snacks	.171(**)	.167(**)	.068	-.025
	Regularity of snacks	.164(**)	.109(**)	.068	-.121(**)
Frequency of eating	Soup	.199(**)	.139(**)	.047	-.113(**)
	Green vegetables	.211(**)	.113(**)	-.048	-.130(**)
	Fruits	.188(**)	.169(**)	-.026	-.137(**)
	Instant noodles	-.049	.015	.049	.162(**)
	Dairy products	.113(**)	.049	-.082(*)	-.091(*)
	Carbonated beverages	.059	.089(*)	.052	.052
	Chocolates, Candies or Caramels	-.051	.012	.076(*)	.040

\* p<0.05  
\*\* p<0.01

권위적인 양육태도는 아동의 정서적 안정성과 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sup>43)</sup>. 본 연구 결과에서도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따른 간식 식습관은 양육 행동 특성이 합리적이고 애정적인 태도일수록 간식을 직접 만들어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양을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부모의 양육행동이 방임이 클수록 부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무분별한 간식의 양과 시간은 아동의 규칙적인 식사를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sup>34)</sup>. 따라서 바람직한 간식 식습관 형성은 성장기에 있는 초등학생들의 균형있는 성장발달을 도울 수 있다. 국, 과일, 우유의 섭취빈도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합리적이고 애정적인 태도일수록 많이 섭취하며 방임일수록 적게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들의 기호도가 낮은 녹색 채소의 섭취<sup>14)</sup>는 어머니의 양육 행동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따라 섭취를 증가시킬 수 있다. 방임적 양육 행동에서는 방임정도가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녹색 채소를 더 자주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sup>31)</sup>의 결과에서 아동에게 영양교육을 실시 후 채소섭취가 유의적으로 증가된 것으로 보아 어머니가 아동에게 애정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채소의 영양적 중요성을 설명해 준다면 채소 섭취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선호도가 높은 라면의 섭취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방임일수록 더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콜렛, 캔디 등은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 태도일수록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의 지나친 과보호는 아이의 욕구를 통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아동의 비만을 유발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과를 표로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식사시의 표정에 대한 질문에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합리적이고 애정적일수록 식사시간을 즐겁다고 답변하였으며 방임이 클수록 즐겁지 않은 것으로 답하였다. 한<sup>31)</sup>의 결과에서 보듯이 영양지식과 식생활 태도 및 식습관 사이에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식생활 태도와 식습관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어 식생활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아동일수록 식습관이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가정에서 주부들은 핵심적인 역할을 하여 가족 구성원 모두가 섭취할 식품을 계획, 구입, 조리하는 등 가족의 식생활을 좌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이들이 식품을 접하는데 있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 준다면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으며 아동기 이후 성인기까지의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 IV. 요약 및 결론

전주시에 위치한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식생활 실태를 조사하여 어머니의 양육행동과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본 조사의 대상자는 4학년에서 6학년의 초등학생 총 800명으로 남학생은 376명이고 여학생은 337

명이며 조사 대상자의 어머니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가 42.2%,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57.8%로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연령층은 35~39세가 50.1%로 가장 많았다. 어머니의 학력은 대학졸>고졸>대학원졸>전문대졸>중졸 순으로 나타났다.

2. 초등학교 아동의 식습관 실태는 아침 식사는 '주식과 부식을 매일 먹는다'가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으며 '항상 먹지 않는다'는 2.3%의 응답을 보였다. 아침식사를 준비하는 사람으로는 어머니가 94.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남·여학생 모두 한주에 1~2회 정도 아이들만이 저녁식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일 가족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는 경우는 6.9%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저녁식사를 함께 못하는 사람은 아빠가 58.0%로 가장 많았으며 두 분 다 인 경우도 10.5%로 남·여학생 모두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외식의 횟수는 68.7%가 주 1~2회 정도 외식한다고 하였다. 외식 종류는 남·여학생 모두 주로 '양식을 먹는다'고 하였으며 방과 후 간식을 챙겨주는 사람은 '엄마'가 53.1%로 가장 많았으며 '혼자서 챙겨 먹는다'가 38.9%로 그 다음이었다. 간식의 종류는 남학생은 과자와 과일을 유사하게 선호하였으며 여학생은 과일을 더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식은 주로 만들어서 먹는가'의 질문에 남학생은 '그렇지 않다(41.8%)'가 가장 많았으며 여학생은 '때때로(46.7%)'가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다. 국 먹는 횟수는 '매일 먹는다'가 가장 많았고 녹황색 채소의 섭취는 남·여학생 모두 주 1~2회 섭취한다가 가장 많이 응답하여 낮은 선호도를 보였다. 과일은 '매일 먹는다'가 가장 높게 나타나 과일 선호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라면은 주 1~2회가 57.9%로 가장 높았으며 우유나 유제품은 매일 먹는다(48.8%)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청량음료는 38.4%가 주 1~2회 마신다고 하였으며 10.4%만이 매일 먹는다고 하였다. 초코렛, 캔디, 엿 등 단 과자 등은 주 1~2회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아침 식사의 규칙성은 어머니의 환경요인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직업이 있는 경우 아침식사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 '아빠' '할머니'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아이들만이 저녁을 먹는 횟수도 어머니가 직업이 없는 경우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함께 저녁을 먹지 못하는 경우(26.4%)는

직업을 갖지 않는 어머니의 경우(17.3%)보다 높게 나타났다. 방과후 간식을 준비해주는 사람은 어머니가 직업이 있는 경우에는 '혼자서 챙겨 먹는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간식을 만들어서 먹는가'의 질문은 '그렇지 않다'가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다. 간식을 먹는 규칙성은 어머니의 취업유무와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이나 경제수준은 식습관과는 유의성이 없었다.

3.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합리적이고 애정적인 태도일수록 간식을 직접 만들어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양을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부모의 양육행동이 방임이 클수록 부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국, 과일, 우유의 섭취빈도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합리적이고 애정적인 태도일수록 많이 섭취하며 방임일수록 적게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채의 섭취 횟수는 어머니의 합리적 지도 양육, 애정적 양육 행동이 높은 집단일수록 더 많이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임적 양육 행동에서는 방임정도가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녹황색 채소를 더 자주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선호도가 높은 라면의 섭취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방임일수록 더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코렛, 캔디 등은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행동일수록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참고문헌

- 1) Moon SJ and 小石秀夫. Nutritional Ecology, shingwang press, 1989.
- 2) B.C. Schorr and D. Sanjur. Teen-age food habits. J. Am. Diet. Assoc., 61, 451, 1972.
- 3) Kim JH, Lee MJ, Yang IS and Moon SJ. Analysis of affecting korean eating behavior. Korean J Dietary Culture, 7(1): 1-8, 1992.
- 4) Murcott, A. The cultural significance of food and eating, proc. Nutr. Soc, 41: 203, 1982.
- 5) Yperman, A.M., J.A. Vermeersch. Factors associated with children's food habits. J Nutr. Educ., 11(2): 72-76, 1979.
- 6) Park SY, Jun CA, Han SY. Mother's parenting as related to child's temperament, mother's

- temperament, and mother's parenting stress. *J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4(4): 203-215, 1996.
- 7) Son NJ and Choi BG. Influences of children's perceived maternal acceptance- rejection and self-evaluation on learned helplessness. *J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4(3): 245-257, 1996.
  - 8) Lee KY and Choi JH. The relationship Mother's child rearing attitude and child self-control.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10(2): 185-196, 2001.
  - 9) Emmons L. Nutrition knowledge of mothers and children. *J Nutri Ed*, 5(2): 134-139, 1973.
  - 10) Mo SM. Nutrition throughout the life cycle, hyoil press. 1995.
  - 11) Jung SJ and Kim HY. Nutrition Knowledge and Food Habits of Housewives. *J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23(4): 101-108, 1985.
  - 12) Eppright ES, et al. Nutrition knowledge and attitudes of mothers. *J Home Ecs*, 62(5): 327-331, 1970.
  - 13) Mo SM and Woo MK. Dietary behaviors of children in day care center regarding the family and dietary environments. *J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22(2): 51-62, 1984.
  - 14) Lee KS and Lee HG. A study on the nutrition knowledge, dietary behavior and food preference of the employed women in Korea. *Korean J Soc. Food. Sci.* 16(4): 301-310, 2000.
  - 15) Kim KA and Shim YH. Cognitive performance and hyperactivity in terms of eating behavior and physical growth among preschoolers-1. a survey on eating behavior of preschoolers. *Korean J Dietary Culture*, 10(4): 255-267, 1995.
  - 16) Kim KA and Shim YH. Cognitive performance and hyperactivity in terms of eating behavior and physical growth among preschoolers-2. The relationships of several factors (nutritional and social factors, cognition and hyperactivity) on preschoolers. *Korean J Dietary Culture*, 10(4): 269-279, 1995.
  - 17) Kim JH, Lee MJ, Yang IS and Moon SJ.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Korean eating behavior. *Korean J Diet Culture*, 7(1): 1-8, 1992.
  - 18) Kim KN.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food habits and personality. *Korean J Nutr.* 15(3): 194-201, 1982.
  - 19) Lim HS. The relationship between food habits and the health responses to the total health index. *Korean J. Nutr.* 14(1): 9-15, 1981.
  - 20) Moon SJ, Lee MH. An effect of children's food attitudes on nutritional status and personality. *Korean J. Nutr.* 20(4): 259-271, 1987.
  - 21) Lee KH and Koh JY. An analysis of the studies about parental characteristics and caring attitude influencing to child development with studies since 1990s. *J Korean Association family welfare*, 3(1): 61-73, 1998.
  - 22) Kim KR. A study on mother's eating attitude and children's eating habits. Yeungnam University masters degree thesis, 2000.
  - 23) Lim JN. Relationship between dietary habits & health condition in preschool children. Yeungnam University masters degree thesis, 2000.
  - 24) Lee JY. Peer relationship and personality of abused children. Ewha women's University masters degree thesis, 1996.
  - 25) Kim SO. A study on mother's educational views and maternal behavior perceived by the children. Sungshin women's University masters degree thesis, 1994.
  - 26) Park HJ. Relations of domestic child abuse and various. Kyungsoong University masters degree thesis, 2000.
  - 27) Ku PJ and Lee KA. A study on dietary habit and nutritional knowledge for elementary school children's nutritional education. *Korean J Dietary Culture*, 15(3): 201-213, 2000.
  - 28) Joo EJ and Park ES. Effect of sex and obese index on breakfast and snack intake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Korean J Dietary Culture*, 13(5): 487- 496, 1998.
  - 29) Ko YJ, Kim YN and Mo SM. A study on eating behavior of middle school third grade students. *Korean J. Nutr.*, 24(5): 458-468, 1991.

- 30) Lee HJ and Chyun JH.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ood habits. Food preferences and personality traits of children. J of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27(2): 85-95, 1989.
- 31) Han HY, Kim EK and Park KW. Effect of Nutrition education on nutrition knowledge, food attitude, food habit, food preference and plate waste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served by the national school lunch program. Korean J. Nutr., 30(10): 1220-1228, 1997.
- 32) Lee, JY. A Study on the Nutritional Knowledge, Food life and health condition in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 5th grade students of elementary schools in Seoul. Dongguk University masters degree thesis, 1997.
- 33) Kim, GM and Lee, SY. The study on nutritional knowledge and eating behavior of elementary school senior student in Incheon area. Journal of korean dietetic association, 6(2): 97-107, 2000.
- 34) Jang YA, Han SS and Lee HS, Won HS, Kim SH, Kim HY, Kim WK, Oh SY, Cho SS. A study for dietary attitude and food behavior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 of Korea. J of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8(8): 85-97, 2000.
- 35) Tchai BS, Kim EI, Han JH and Kim IS. Evaluation of school meal program (1974-1976). J Nutr., 11(2): 96-118, 1978.
- 36) Kim MR. Study on the status of the employed and housewives' meal management in Daejeon city. J Korean Soc. Food Nutr. 13(1): 107-116, 1984.
- 37) Kim JE, Ko SH, Kim JY and Kim HY. A study on plate waste and nutrient intake of school lunches in elementary school. Korean J Dietary Culture, 15(1): 29-40, 2000.
- 38) Yoo HJ, Song KH. A study on the nutritional knowledge, nutritional attitudes and dietary pattern of housewives in seoul. J Kor Home Econo Ass 28(2): 47-55, 1990.
- 39) Lee KH, Yoon SY, Her ES, Lee KY. Analysis of anthropometric and clinical data in obese children in changwon. J Kor Soc Food Sci Nutr 28(5): 1164-1171, 1999.
- 40) Lee KA. The concern for health, nutrition knowledge, and nutritional attitude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s mothers in Busan. Korean J. DIETARY CULTURE 17(4), 2002.
- 41) Kong JS.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ception by a child of a parent's child behavior control pattern and child's internal-external control and self-concept. Ewha women's University masters degree thesis, 1996.
- 42) Lee YH, Beak JE.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parenting behavior and children's stress and self-conception. Association for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4, 91-112, 1997.
- 43) Yeon MH.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ttitude and social-emotional development of kindergarten children. J Kor Home Econo Ass, 36(7), 111-123, 1998.